



# 아프리카 말라위 오천식/박경은 선교사 소식지 - 2023년 12월



**살롬!** 올 한 해도 매 순간 말라위에서 행하신 그분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기도와 물심양면의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귀한 동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역과 가정의 여러 사정으로 1년 만에 소식을 드리게 되어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소식을 기다리시며 궁금해 하셨을텐데 많고 긴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전해드리려 합니다.

## 말라위 정황

남반구에 위치한 말라위는 현재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석유파동은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약 대역섯 차례 찾아왔습니다. 말라위 국가 내에 보유한 달러가 턱없이 부족하여 휘발유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이며, 유조차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파업하여 주유할 수가 없어 타지에서 며칠간 발이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 통화가치(콰차)가 올 11월 9일을 기준으로 44%가 하락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작년 5월에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얼마 전 또 한 번의 큰 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전체 물가가 50% 이상 상승하여 현지인들이 생존의 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말라위인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길 기도하며 저희의 말은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 대학사역

대학에서 지난 봄학기에 시가서(구약), 조직신학 II, 그리고 해석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막 마친 가을학기에는 조직신학 I 그리고 구약 개요를 가르쳤습니다. 조직신학과 구약 개요는 전체 학년 필수 과목이기에 수강 학생 수가 각각 90여 명이 됩니다. 마이크가 없는 말라위 수업 환경이라 쉽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내느라 좀 더 피로감을 느끼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중에 성경에 관한 여러 질문을 하며 배움의 열정을 볼 때마다 강의하는 저도 더 힘이 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교 제도가 있는 한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사역하는 학교를 비롯해 대부분의 말라위 대학은 그러한 제도가 없어 학기가 끝나도 시험과 과제 채점을 하고 성적을 내야 하며, 그 일을 마치면 다음 학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여전히 일이 많습니다. 밀린 업무를 잘 마치고, 연말의 잠시 휴식도 취하면서 다음 학기를 잘 준비 하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총장 선임

앞선 편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에 대학 총장님이 아직 60세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새로운 총장을 세우는 일이 순조롭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난항을 겪은 이후에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섬겼던 새로운 총장을 최근에 선임하였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체계가 잘 정착되어 더 나은 ABC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장학금 지원

초등학생(사립), 고등학생 여러 명의 학비 전액, 그리고 몇 명의 대학생 학비의 전액, 또는 일부와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말라위(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에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 #구제 및 사역 지원



5명의 장애 또는 고아 초등학생 가정에 6년째 매달 주식인 옥수수, 겨울옷, 생필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학업과 생활 모두 잘 자립해 가기를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한 마을을 찾아 어려운 가정을 선별하여 주식인 옥수수 50kg 7포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에 ABC에서 올해 졸업한 부모가 없는 고아 졸업생이 어려운 취업난 가운데 자립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 한 동역자께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한인교회 사역

주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주말에는 목회 사역으로 계속해서 꼭 찬 일정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목회만큼 예배나 활동이 많지 않지만, 가르치는 주 사역이 있는 상황에서 4-50명의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목회 사역을 감당함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6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독교 기본교리' 과목을 매주 2시간씩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 내용을 다루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장례식 집례

지난 1월에 말라위에 이민 온 지 40년이 넘는 한인 사회 원로이자 한인교회 교인이었던 故 조오행 성도의 장례를 집례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과 많은 현지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 GMS /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연합회 (중아선)

오선교사가 속해 있는 선교부(GMS)에서 말라위/잠비아 지부장으로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남아프리카 지역 행정 코디네이터와 서기, 그리고 2024년 4월에 열리는 아프리카 대륙 연합 선교대회 회계로 섬기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해 250여 명이 모여 선교사 대회를 가지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연합회에서 서기로 섬기게 되어 2024년 12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부와 지역 선교부, 그리고 선교사 연합회에서 맡겨진 중요한 역할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며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연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Partners For Africa (PFA)

남아공에 본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인 말라위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Partners For Africa(PFA; 대표-허창식 선교사)에서 말라위에서 사역을 연계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수도 릴롱궤에 선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과 자동차로 15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필요한 여러 사역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위에 장기로 거주하는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 법원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고 아직 마무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들이 잘

처리되어 말라위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어머니 학교



지난 7월 첫째 주간에 3일의 일정으로 한국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말라위에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주최하신 한인 선교사님(주수경 선교사)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역의 기회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남아공에서부터 참여한 4명의 강사 및 스태프와, 말라위와 잠비아 한인 선교사들로 구성된 10여 명의 스태프 및 약 20명 현지 스태프들이 100여 명의 현지 여성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어머니상과 아내상,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떠한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삶의 노력이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박경은 선교사가 강의 통역으로, 오천식 선교사가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 진행하면서 섬겼습니다. 어머니학교를 통해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맺어주셨던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심을 깊이 느끼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 말라위의 어머니들이 말씀 안에 깨어나며, 가정의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박경은 선교사

박선교사는 여러 자리에서 다양하게 섬길 일들이 많았던 율한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감사함이 큼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적잖았지만, 맡겨주시는 일들이 많은 것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이며,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묵도 하게 하심이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 #우푸루 한글학교

올해 2월 초에 한글학교를 개학하여 12월 초에 총 2학기의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주

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조금씩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되고 있어 매 학기 감사했습니다. 저희 한글학교의 소식을 듣고 후원해주시는 손길들에 힘입어 올 8월에 작게나마 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으며, 후원회가 한글학교 운영에 큰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1학기의 가장 큰 행사는 5월 어린이날 기념 가족 체육대회로 각 가정의 부모님과 학생들 및 온 가족이 다 모여 두 팀으로 나누어 한국에서의 운동회 감성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2학기의 가장 큰 행사는 '국악 체험 한마당'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악기들(소고, 장구, 북, 징)을 연주하는 방법과 전통춤(소고춤, 살풀이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대부분의 한글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ABC 국제학교의 큰 행사인 'International Day'(각 학생들이 출신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고유문화와 음식을 나누는 날)에 무대에 나가 '국악체험한마당'에서 배웠던 것들을 공연하였습니다. (곡-BTS '아리랑')



해마다 있는 인터네셔널 데이에 올해는 첫 순서로 대한민국 팀의 공연으로 전교생과 교사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한글학교 학생들 가슴 속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 너무나 뿌듯한 경험을 했음에 감사합니다. 두 달여 간의 방학 후에 내년 2월에 2024학년도 새 학기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 #한인교회 헤세드 중창단 및 카리스 관현악단

올해 1월 초에 음평구 고아원 사역에서 헤세드 중창단과 카리스 관현악단이 작년 연말에 열심히 준비했던 곡들로 조금 늦은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처음 듣고 보는 악기들과 찬양 소리에 집중하는 현지 고아원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찬양으로 충분히 전달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주사역으로 현지인들의 주식인 옥수수와 생필품 선물을 준비해서 갔기

에 고아들의 몸과 정서적 필요를 함께 채워 주어 더욱 행복하고 만족해했습니다.

4월 고난주간에는 헤세드 중창단에서 ABC대학 채플 시간에 그동안 준비했던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카리스 관현악단은 얼마 전인 11월 말 ABC대학 채플에서 성탄의 메시지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카리스 관현악단을 이끌었던 선교사님이 후원받은 악기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늘, 하람이를 비롯하여 다른 선교사님의 두 아이도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고, 카리스 단원으로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이 주신 작은 은사로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이 땅 말라위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기꺼이 나눠주는 모든 찬양팀이 되길 바랍니다.



### 하늘, 하람, 예림, 예원



하늘이는 며칠 전 12월 중순에 7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키와 비슷하게 자란 하늘이는 주변에서 대학생이냐고 기분 좋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곤 합니다. 가족들과 농담도 말도 많이 하고 교회의 어린 동생들과도 신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아직은 사춘기가 순조롭게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만이로서 책임감이 강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람이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신나게 학교생활을 하며 5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걱정이 없고 밝아서 주변에 친구가 많고, 두 동생을 잘 챙깁니다. 학기의 끝자락부터는 하람이가 예림이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함께 등교 하는 것에 두 형제가 재미를 붙였습니다.



예림이는 생일 때문에 유아원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며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예림이는 작년에는 반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가장 어려서 상대적으로 배움의 속도가 벽차 보였는데, 유아원을 반복하면서 영어를 읽고 쓰는 것에 흥미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더불어 한글학교를 다니며 한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줍음이 많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시간이 좀 필요한 예림이가 교회나 학교에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보기 좋습니다.



예원이는 엄마와 함께 집에서 언니와 오빠들이 학교 갈 때 배웅하고,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12월 초에 세 번 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보다 잘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남매 중에서 가장 애교가 많고 자기 의사가 가장 확실합니다.

### 우물 사역

지난 8월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가정을 통해 식수와 사용할 물이 없는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지만, 아쉽게도 현재 보수작업이 필요하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속히 보수작업이 마무리되어 마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해 주세요!

1. 최근의 급격한 현지 통화 가치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많은 현지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올 우기에는 태풍과 홍수의 피해가 없도록
2. 새롭게 세워진 ABC 기관의 리더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는 사역을 이끌도록
3. 대학의 학생들과 말라위인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지역 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전하도록
4. 한글학교가 한국 아이들이 교육과 정체성뿐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5. 하나님과 말라위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영육의 건강함으로 맡겨진 학교와 목회 사역 성실하게 감당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말라위에서 오천식/박경은/하늘/하람/예림/예원 올림